‘수행과 회향’ 으로 세상 밝힌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 올 종무 기조와 계획

천태종은 1월 13일 단양 구인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 및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수행풍토 진작과 수행환경 개선 △포교 및 교화체계 확립과 내실화 △문화 · 복지를 통한 대사회 회향 등 3대 종무지표와 28개 종무계획을 제시했다. 중창조인 상월원각 조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불사 계획도 내놓았다.

3대 종무지표

- 수행풍토 진작 · 수행환경 개선
- 포교 · 교화체계 확립 · 내실화
- 문화 · 복지 통한 대사회 회향

▶종단 운영 방향의 큰 흐름은.

천태종은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 당시부터 스님과 재가불자가 함께 안거에 드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전통을 살려 승 · 속이 함께 하는 종단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또 올해 계획 중에는 어느 해 보다 대외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내적인 분야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종단의 역량을 사회에 회향하는 데 운영지침으로 삼을 계획이다. 회향 방법은 교육과 복지활동이 될 것이다. 금강대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의 활동을 주목해 달라.

청년층·軍 포교 강화…유물전시관 착공
“상월조사 100주년 기념 종단 발전 계기로”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와 스님 노후복지제도 확립, 본말사 수행환경 개선, 재가불자 수계산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 황룡사를 비롯한 8개 사찰의 불사도 올해 마무리한다. 96억원을 들여 올해초 착공하는 구인사유물전시관은 연면적 1천9백여평 규모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국보 25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권 제29 등 국보 2점과 보물 9점을 비롯해 2천6백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또 국제불교 유물도 상당수 포함될 것이다.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5월중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해 2011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념사업회는 원로 스님들의 증명을 토대로 <상월어록>을 발간하는 것은 물론, ‘상월문학상’ 제정, 학술세미나 개최, 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전국 순회공연 개최, 불교문화사진전 매년 개최 등을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의 사상과 업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것이다.

▶‘포교 확대와 대사회 회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먼저 젊은층 포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구 대성사를 비롯한 3개 사찰에 교양대학을 개설하고, 천태학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논문이나 학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종단의 주요 홍보매체인 <천태종보>를 월2회로 늘려 발간하겠다.

대사회 회향은 종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올해 가장 많은 과제를 선정한 분야도 바로 사회 참여와 회향 분야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와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결식아동을 위한 3:1 릴레이 운동, 외국인노동자 · 탈북자 지원체계 확립, 몽골 문화원 설립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의 내용은.

국제포교 차원에서 현재 캐나다와 덴마크에 포교당이 이미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포교당은 사찰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에는 몽골과 미얀마, 스리랑카 불교와의 인적 · 사상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교류가 새롭게 시작된다. 파키스탄은 대승불교와 간다라불교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와는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천태종은 파키스탄에 불교를 다시 전해주고 싶다.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군포교를 위한 계획은.

군포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군불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종단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다. 군법당과 지역사찰이 연계를 갖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천태종은 군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졸업자들의 군승 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협의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단양=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코스닥기업 인수
사찰 네트워크·장묘사업 연계 맡아

태고종의 재단법인 태고원(이사장 일우)은 코스닥에 등록된 스마트카드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에이엠에스를 최근 인수했다. 기존 (주)씨씨케이밴의 소유지분 140만주(12.33%)를 태고원이 30억원을 들여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태고종은 빠른 시일내 경영권을 넘겨 받아 종단의 수익법인체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사업외에 태고종과 연계한 사찰 네트워크 사업과 장묘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단 불사와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이엠에스를 불교의 이념을 사회화하는 모델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엠에스는 88년 설립된 PVC카드 제조업체로, VISA, MASTER카드, MONDEX 인터내셔널에 납품하고 있다. 충북 진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자본금은 134억7천여만원이다.

박봉영 기자

4차 영통사 기와지원 또 무산
천태종 “합의서 위반” 취소

북한 개성 영통사 기와 지원을 위한 4차 방북이 북측의 합의서 위반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방북 하루 전인 1월 11일 저녁 “영통사 현지 및 개성 시내 등 방북단의 개성공단 밖 개성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공단 지역내의 체류만 허용한다” 고 북측이 통보해오자, 천태종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방북이 취소됐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은 “4차 방북 취소는 북측의 합의서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내심을 갖고 북측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 영통사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지종 스승퇴임법회 봉행

총지종은 1월 13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정년이 된 현역스승의 퇴임법회를 봉행했다. 법정, 무공 정사와 사홍화, 지선행, 법지원 전수 등 이날 퇴임한 스승은 교화 일선에서 물러나 기로원 등지에서 수행에 전념하게 된다. 이에 앞서 총지종은 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수성 종령은 “화합된 힘으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도록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14일 열릴 예정이던 제86회 임시중앙종의회는 취소됐다.

동방불교대 불미과 졸업전 성료

동방불교대학은 1월 15~20일 서울 삼정아트인터페이스에서 불교미술과 졸업작품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교미술과 2학년 학생 3명이 불상과 탱화 등 8점을 출품했다. 15일 열린 개막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동방불교대학 부학장 수암 · 만춘 스님, 동문과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운산 스님은 “학교에서 습득한 미술을 통해 스스로의 수행은 물론 사회와 대중교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종단소식

종단협 29일 신년하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1월 2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48년 신년하례 및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 총무원장, 신행 · 포교단체장, 정 · 관계 불교인사 등 4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로 자리를 옮겨 리셉션을 개최한다.

조계종 진정·탄원 기준 제시

조계종 호법부는 무기명 진정, 투서, 탄원 등에 대해 ‘인정사항이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하지만, 진정내용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경우 조사처리한다’는 입장을 1월 16일 발표했다. 그러나 승가의 위의를 훼손할 경우 종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종단의 대내적인 문제 또는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를 익명으로 진정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무기명 게재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진선여중·고 신임교사 채용

회당학원은 과학(물리) 1명, 영어 2명 등 진선여중 · 고교의 신임교사를 채용한다. 서류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진선여고 행정실에서 접수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 실기 시험으로 선발한다. 2차 시험은 2월 9일 진선여고에서 실시된다. (02)567-6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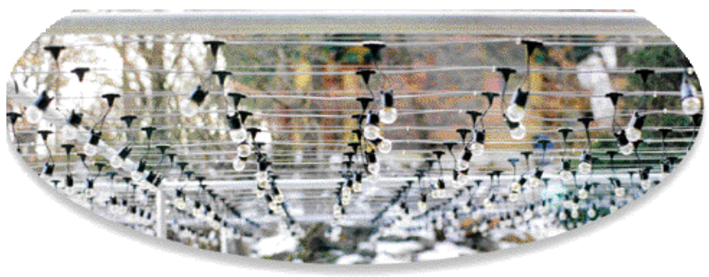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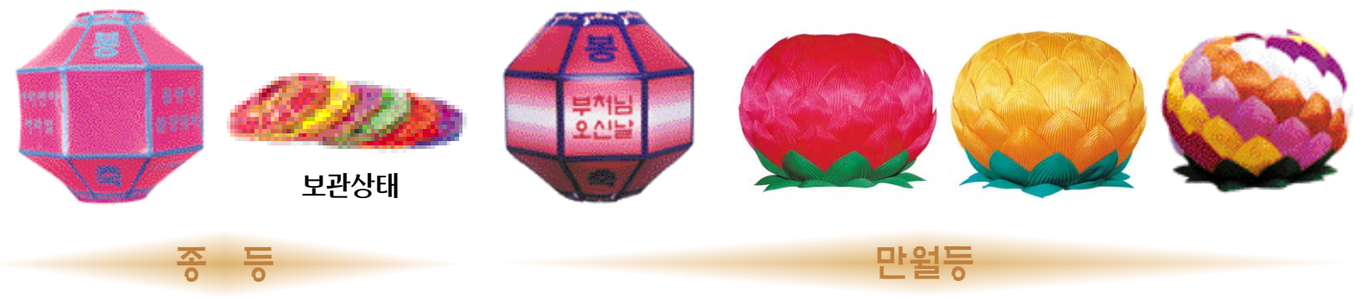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